

金-安 '2파전' 양상... 수도권·영남 표심 놓고 신경전 가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결선투표 없는 당선 목표

김기현 '안, 철새정치' 비판에 안철수 "네거티브 안타까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사진 왼쪽)·안철수(사진 오른쪽) 의원 간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뉴시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경선 초기부터 다툼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현안뿐 아니라 불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전당대회가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다투는 현안은 '수도권·영남 표심의 향방'과 '당적 변경 유무' 등이다. 양측이 결선투표 없는 당선을 목표로 하면서, 지지세 확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게 수도권·영남 표심 문제였다.

김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안철수는 2030 수도권, 김기현은 40대 이상 영남권 강세"라는 분석에 대해 "틀렸다"

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급한 뒤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것(1월 22~23일, 전국 유권자 2002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 대상,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해당 조사 결과 김 의원 지지율은 서울에서 25.5% 지지율을 기록, 안 의원(17.1%)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는 김 의원(24.0%)과 안 의원(24.6%)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중도와 2030 표심은 안철수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로 반박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저야말로 외연 확장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며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서 승부해보자"는 말도 했다.

안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김 의원이 '철새정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맞섰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표심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철새 정치를 하거나 여기 기웃저기 기웃하는 정치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안 의원이 정치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긴 데 대해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26일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말씀 아니

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맞섰다.

안 의원 170V 캠프 손수조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김장연대 하다 갑자기 장을 지우라 하고, 연포탕 하다 갑자기 진흙탕을 만들고, 오락가락 김 후보 행보가 조금해 보인다. 언론 앞에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하고 뒤돌아 국민 앞에서는 네거티브만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내부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권주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중한 전당대회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원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 당심(黨心)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檢 출석 앞둔 이재명, '텃밭' 전북서 민생행보 주력

7.2조 에너지 지원금 제안 이어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 나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여러 회의와 텃밭인 전북 지방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실제 조사도 이 대표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예정이다.

당 대표 취임 후 받는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난방비 급등,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회의를 거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책으로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에너지 관련 기업 황제세 부담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가폭력 인권 범죄에 대한 각종 소멸시효,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을 배제하는 법안 통과에 성

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후엔 '텃밭' 전북으로 향해 지역 시민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떠났다.

26일 예정된 지방 일정 4개 중 3개를 전북 정읍에서 축산 관련 민심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최근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한우 도매 가격 폭락으로 울상 짓는 축산업 종사자를 만나 이를 위로하고 유통 과정 단순화 등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까지 총 6차례 진행된 경청투어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결백함을 주로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25일) 민주당 내 초선 강경과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한 데 이어, 오후 11시가 넘는 시각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방위, 北무인기 현안 보고 복귀 시간 공방전 전력 강화 요청도

국회에서 지난 12월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초 침입 무인기가 북으로 복귀한 시간을 두고 국방부와 공방을 벌였고,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공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는 군 장비를 지적하며 전력 강화를 요청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북한 무인기 정비태세검열 결과 보고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군 당국의 보고보다 최초 침입 무인기가 빠르게 군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군단 진지에서 (최초 침입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에 최초탐지 됐다. 이어서 수도권방위사령부(수방사) 진지에서 10시 38분경에 탐지됐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탐지를 했지만 그것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아니다. 그때는 1군단하고 수방사가 중첩해서 그것을 무인기로 평가했다고 정비태세검열단에서 이야기 했다. 상당히 서울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속도와 군사분계선에서 용산까지 직선거리를 보았을 때 30~40분 걸렸을텐데 (무인기가 용산까지 도달했을 때가) 10시 50분경을 보인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전까지 레이더 상에 포착된 표적이 무인기인지 새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합참의장 대답을 듣고 난 후 탐지 장비 최신화와 연구 개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2014년부터 무인기 도발을 시작했고 2017년엔 경북 상주 사드기지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도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표적 판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尹 "與 전당대회... 좋은 축제니 꼭 참석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행사 나 전 의원 불출마 관련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3·8 전당대회,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오찬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찬은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오찬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오찬에서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3·8 전당대회 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요청에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전당대회라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당대회 주요 일정과 컷오프 등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오찬에서 나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질문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와 관련 '어떻게 해 달라', '무엇을 하라'는 것은 당무개입"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겠다"고 답했다.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한 듯 오찬에서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오찬에서 UAE·스위스 순방 성과 관련 이야기가 주로 오찬 점을 강조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UAE 순방에서 있었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도 강조했다. UAE로부터 투자 유치 받은 데 대해 정부는 대통령실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UAE·스위스 순방 선물로 대추야자를 전달했다. /최영훈 기자